

도입단계의 종합목록에 관한 고찰

- 국공립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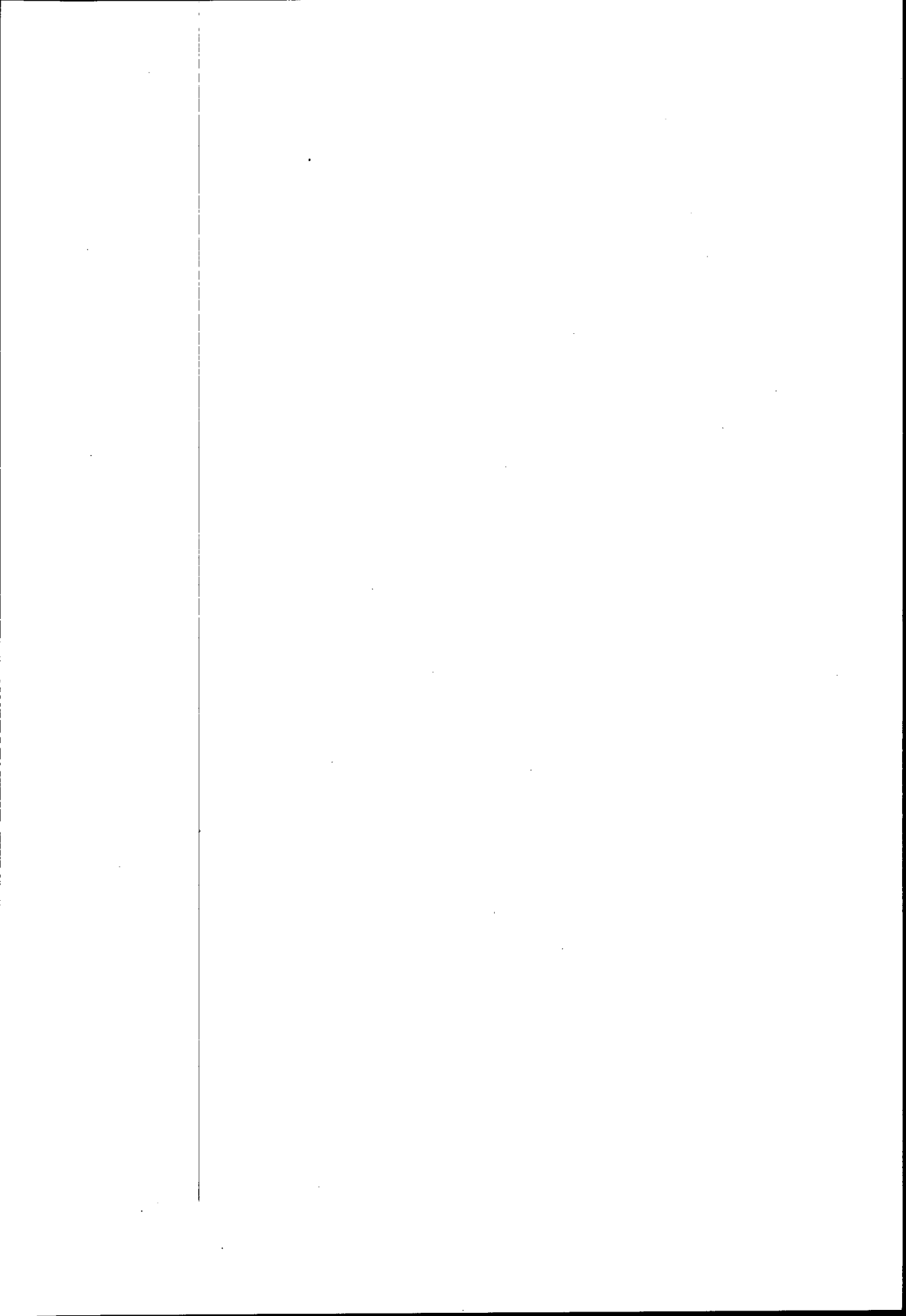
창원대학교 도서관

조 정

목 차

1. 서 론
 -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1.3 종합목록 개념
2. 결과 분석
 - 2.1 각 도서관 현황
 - 2.2 종합목록 이용 현황
 - 2.3 종합목록 전망
3.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 록



1. 서 론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도서관 자동화가 도입된 1960년대 중반의 컴퓨터는 목록 자동화 시스템으로 카드 제작에 사용되었다. 이는 카드목록 환경에서의 기계가독형 편목법으로 이용된 것이며 컴퓨터기술과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으로 1980년대부터는 목록데이터가 자관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으로 변화되었다. 온라인 열람목록 OPAC(Online Public Access Catalog)의 개발은 도서관 전산화로 이용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9년 학술정보전산화 장·단기 계획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도서관 전산화가 추진되었으며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향이 활발해졌다. 서울대학교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국가도서관망의 기반확충과 자료의 공유화를 위한 국가 서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와서는 도서관 전산화 패키지 시스템의 활용으로 공공도서관에까지 더욱 확산되었다. 이러한 전산화 작업의 결과 서지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정보량의 급증과 봉사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해 도서관은 공동 수서, 분담 목록, 상호 대차 등의 협동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이용자들은 목록정보를 얻기 위하여 온라인 열람목록을 탐색하는 일이 많아졌으나,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한 탐색으로 반복적인 Log-in, Log-out이 빈번하고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아 시간이 낭비되었다. 따라서 국내 도서관이 공유 할 수 있는 종합목록을 구축하고 표준화된 목록작성으로 중복 목록방지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대출 할 수 있는 종합목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육부 산하 첨단학술정보센터(KRIC·Korea Research Information Center)에서는 종합 목록 구축 및 서비스를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KRIC은 학술정보 유통을 위한 중심기관으로서 학술연구의 전과정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외 학술연구정보의 신속한 수집 제공으로 선진 연구환경 조성 및 국내외 학술정보 관련기관과의 지원공유체제 확립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도서관을 하나의 망(Network)으로 묶으려는 국가적인 사업의 태동이며, 학술정보의 유통체제를 확립하고 한편으로는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노력의 가시화라 볼 수 있다. 현재(1998. 7. 14) KRIC에서는 Version 2.04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종합목록을 지원하는 공동목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표준목록을 센터에 모아 종합목록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이미 작성된 목록데이터는 타 도서관이 이용하며, 포함하지 않은 목록데이터는 최초 입수한 도서관이 신규 작성하도록 하여 공유한다. 이를 통해 편목 작업에 들이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중복 수서를 방지하면서 나아가 정보자원의 공유를 통해 광범위한 자료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교육전산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KRIC의 이용 현황(1998. 8. 3. 현재)에 따르면 143개 대학목록이 통합되어 있으며 전문대학 도서관의 데이터 베이스는 1999년 통합될 예정이다. 또한 종합목록을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 교육을 받은 도서관도 125개교로 나타나 있다. 앞으로 정보 인프라를 활용해야 할 중요한 데이터 베이스로서 종합목록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공동목록이 도입되고 있는 현 단계에 있어서

첫째, 종합목록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고

둘째, 각 도서관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상태와 종합목록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셋째, 종합목록의 가치를 높이는 조건과 시행기관인 첨단학술정보센터의 역할을 파악하고

넷째, 실무 사서들이 종합목록 이용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요구사항 수집하여 직접 생산자와 이용자로 참여하고 있는 일선 사서들의 인식과 종합목록의 장점을 확대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스템 품질평가등은 종합목록이 정착한 이후로 미루기로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국공립대학 도서관보 16집(1998) 회원 주소록에 수록되어 있는 전국의 49개 국공립 대학도서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조사기간 : 1998. 7. 21 ~ 1998. 8. 10

- 조사방법 : 각 회원 도서관의 정리 부서 편목 담당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개인의견 사항과 도서관 전체의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1개관에 1부씩 우편 발송하였다.

- 응답분포 : 종합대학교 22개교 중 13개교, 대학 11개교 중 9개교, 교육대학 및 특수목적대학 16개교 중 11개교이며, 총 33부가 회수되어 응답률 67.3%로 나타났다. 설문지 배포 기간이 길지 않았고 여름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회신율이 저조했다고 여겨진다.

- 조사내용 : 도서관 현황, KRIC의 종합목록 이용현황, KRIC의 전망 등 세부면으로 이루어졌다.

1.3 종합목록의 개념

1) 정 의

종합목록이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펴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1996)에서 “①특정 도서관 또는 여러 도서관의 목록을 종합하여 발행한 목록으로서 자료의 소재를 안내하는 목록 ②인쇄 및 기계 가독형을 망라한 특정분야나 주제의 도서관 장서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으로 정의하고 있다.

ALA Glossary(1984)에는 “A catalog of the collections of all the libraries of a library system (a central catalog) or of a group of independent libraries cooperating for this purpose, with indication by means of location marks of the libraries in which a given bibliographic item may be found.”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목록은 복수 도서관간의 협력에 의해 구성되고, 자료의 형태나 범위에 따라 대상이 결정되고, 목록에 통일된 기입이 사용되고, 소장도서관명이 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목 적

첫째, 도서관간의 상호대차제도 확립으로 단일 도서관 봉사를 소속 지역 또는 봉사 가능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에 있다.

둘째, 한 도서관의 한정된 예산으로 자료를 구입하는 것 보다 공동의 수서계획에 의한 분산 구입으로 예산 절감과 도서관 자료의 구성 폭을 넓힐 수 있다.

셋째, 자료의 통일성있는 목록 작성으로 자료정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일된 목록 조직 작업에 기여한다.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와 같이 도서관 자료의 정리와 종합 목록의 작성을 위한 동시적인 협력은 협력 도서관에서 입수되는 모든 자료의 정보를 전산기의 단말 장치를 통해 센터에 입력하는 것이다. 입력된 자료는 센터에서 분류, 편목되어 다시 소장관에 보냄으로써 협력을 통한 자료정리와 동시에 협력관의 종합 목록이 작성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종합목록의 작성은 목록기술의 발전과 그 통일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어 종합목록의 발전은 곧 목록 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3) 기능과 선행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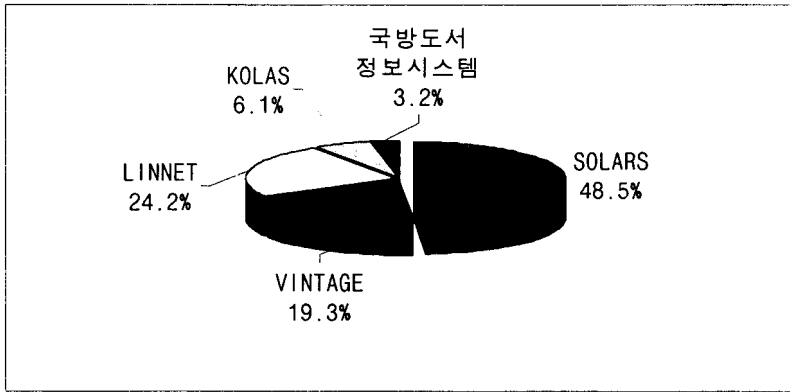
종합목록은 서지 정보를 위한 기능, 장서구성의 기능, 목록표준화 기능 등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목록 규칙 표준화, 사용 부호 일치, 목록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 결과분석

2.1. 각 도서관 현황

1) 이용 시스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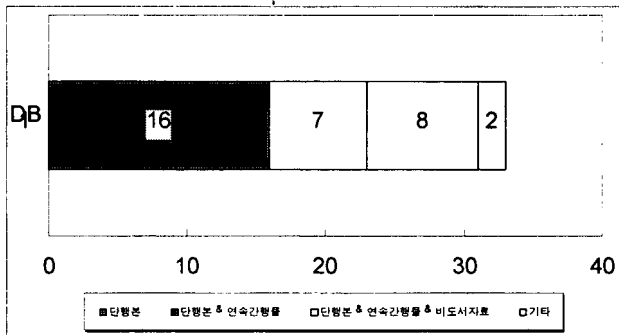
아래 <그림1>은 사용중인 시스템 프로그램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울대학교와 한국컴퓨터(주)에서 개발한 SOLARS 프로그램사용이 16개관(48.5%)으로 가장 많고 Linnet은 교육대학을 중심으로한 8개관(24.2%)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Vintage 6개관(18.2%)이며, KOLAS 2개관(6.1%)이며 육군사관학교(3.0%)는 국방도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림 42〉 사용시스템 프로그램

2) 데이터 베이스 구축 정도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등이 모두 완료된 도서관이 8개관(24.2%)으로 나타났고, 단행본만을 데이터 베이스화한 곳이 16개관(45.1%)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림2> 기타에는 학위 논문을 따로 구축 하고, 중·일서를 구축한 것을 나타냈다.



〈그림 1〉 DB구축 정도

3)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방법

KRIC의 종합목록(1998. 8. 3.현재)에 143개 대학의 목록이 통합되었다는 통계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대학이 소장자료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표1>과 같은데 오

리지널 원시 입력이나 점검된 기본카드를 사용한 곳은 몇군데 되지않았고, 용역 입력도 상당히 많았으므로 데이터의 완전한 신뢰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서양서 자료는 Bibfile, CatCD 450등 서지목록 도구를 이용한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데이터질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상세한 내용은 <표1>과 같고, 기타 항목은 입력방법의 혼합을 나타낸다.

	오리지널 원시 입력	기본카드 직원 입력	기본카드 용역 입력	국립중앙도서관 데이터반입	서지목록 도구 이용	기타	계
동양서	9(27.3%)	8(24.2%)	6(18.2%)	4(12.1%)		6(18.2%)	33(100%)
서양서	11(33.3%)	2(6.1%)	2(6.1%)		18(54.5%)		33(100%)

〈표 1〉 DB 구축 방법

4) 조직체제와 입력인원

대부분의 도서관은 업무 흐름에 따라 수서, 정리, 열람의 조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제별로 조직된 곳도 있어 정보자료 선정에서 자료정리, 정보봉사업무 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검색실, 첨단자료실, 전자자료실 등의 실 단위로 바뀌고 있어 예전에 비해 업무의 분산화 양상으로 옮겨지고 있다. 자료의 편목작업을 정리과 사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제분야의 사서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편목사서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목사서의 수를 묻는 설문에서는 2명이 12건(36.4%)로 가장 높았고, 3명이 7건(21.2%), 4명이 6건(18.2%), 5명이 5건(15.2%), 기타 3건(9%) 순으로 나타났다.

2.2 종합목록 이용 현황

1) 목록 참여 여부

조사기간중 종합목록의 공동목록 편목작업에 참가하고 있는 곳은 5개 도서관(15.2%)에 불과 했으며 그의 28개 도서관(84.8%)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목록 규칙 지침서"와 "공동목록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사용

27개관(81.8%)에서 지침서와 사용자 설명서를 받아보았고 6개관(18.2%)은 네트워크등의 미비로 접해 본 적이 없었다. 지침서와 설명서를 받아본 27개관에서 지침서와 사용자 설명서의 충실도는 “충분하다” 4개관(14.8%), “보통이다” 16개관(59.3%), “부족하다” 7개관(25.9%)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교육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서들이 교육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설명서 내용이 충실해져야 하고 목록 규칙 지침서는 규칙등의 보완과 수정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3) 이용 교육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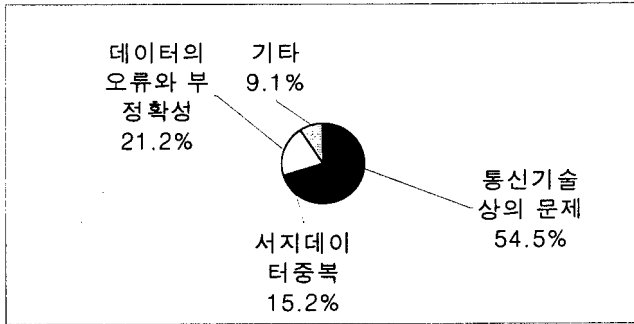
KRIC에서 실시하는 이용교육의 “기초교육에만 참가한 적이 있다” 14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사서실무 교육과정까지 받았다” 5건(15.2%), “신청중에 있다” 3건(9.1%)이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는 10건(30.3%)으로 나타났다. 전체 편목자들이 아닌 설문대상자 33명중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때 적극적인 교육참여가 요구된다.

	기초교육이수	사서실무교육이수	신청중	계획없음	무응답	계
건 수	14	5	3	10	1	33
백분율	42.4%	15.2%	9.1%	30.3%	3.0%	100%

(표2) 사용자 교육

4) KRIC 종합목록의 문제점

현재 KRIC 종합목록의 문제점으로는 과반수 이상인 18건(54.5%)이 통신 기술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데이터의 오류와 부정확성 문제를 답한 것이 7건(21.2%)이었으며, 서지데이터의 중복 5건(15.2%), 기타 의견 3건(9.1%)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통신기술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데이터의 문제가 36.4%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산화 시작 단계에서도 우려했던 문제가 나타난 것이며 우리나라의 전산화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의 오류와 누락등 부정확한 점을 작업시에 계속 수정하고 신규 데이터는 좀 더 정확히 입력하고 동시에 KRIC에서도 입력과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극복해 나가야한다.



〈그림 2〉 종합목록의 문제점

5) 사용중 문제점 (종합목록이용도서관 5개관을 대상으로)

① 의문사항 해결방법

사용중 의문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3개관(60%)이 KRIC에 문의하며, 2개관(40%)은 다른 도서관에 문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편목사서들은 문제가 발생될 때 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점을 도출하도록 하고 KRIC에서는 적극 수용하여 이를 기초로 규칙을 보완하고 새로운 규칙 제정등의 상호 협력으로 종합목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② 연락 매체

연락 수단으로 5개관 모두 전화를 사용했으며 2개관은 전화와 동시에 E-mail을 이용하고 있었다. 직통 시외 전화가 쉽지 않은 곳이 많고 대상자와 실시간 연결제약이 없는 E-mail이 편리해 점점 이용이 많아지리라 본다. 각 도서관의 담당자간에도 업무의견 교환을 위해 상호 빈번한 연락이 필요하며 특히, KRIC에서도 목록 담당자들에게 E-mail로 연락하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규칙의 상이

편목 규칙이 기존의 자관 규칙과 다를때 KRIC 규칙에 따르는 곳은 1개관(20%)이고, 그의 4개관(80%)은 모두 자관의 규칙에 따랐다. 설문 조사 결과 48.5%가 SOLAR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7XX Tag를 사용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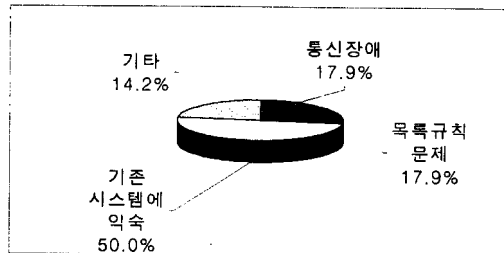
1XX Tag로 기존의 자관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KORMARC이 현재 KS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며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개정이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목록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이 혼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종합목록의 신뢰정도

전적으로 종합목록에 의존하는 곳은 1건도 없었으며 반드시 일부 Tag를 확인하고 있다. Download한 후에 090, 093, 850 Tag등 자관 Tag뿐만 아니라 다른 서지사항을 확인 하고 있었으며, 245 Tag (서명/저자사항), 300 Tag (형태사항), 7XX(1XX) Tag (저자사항), 500 Tag (일반주기사항) 순으로 비중을 두었다. 해당필드와 서브필드의 지시기호를 확인하고 표목의 정확한 사용여부, 철자 오류, 대소문자 확인, 한자변환등을 확인하고 오류가 발견 되었을 때 “수정요청”을 하고 데이터를 갱신하도록 하여 정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6) 사용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 계획(사용하지 않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현재 28개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그림4>와 같이 통신문제 5건 (17.9%), 목록규칙문제 5건(17.9%)등으로 나타났고 네트워크 미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다. 14건(50%)이 기존 시스템에 익숙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자관원시입력이 빠르고 최신자료의 목록이 없으며 목록기술이 부정확하고 불충분하여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에서이다.



<그림 3> 사용하지 않는 이유

<표3>은 앞으로 이용계획을 나타낸 것으로 “계획없음”이 18건(64.3%)으로 가장 높고 “6개월 이내 사용예정”인 건수도 5건(17.9%)이다.

	6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계획 없음	계
건 수	5	2	3	18	28
백분율(%)	17.9%	7.1%	10.7%	64.3%	100%

<표3> 이용계획

2.3 KRIC의 전망

1) 대학종합평가에 반영

- ① 찬성 11건 (33.3%)
- ② 반대 21건 (63.7%)
- ③ 무응답 1건 (3.0%)

설문 조사 결과로는 반대가 21건(63.7%)이었으나 설문지에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적은 설명문에서 보면 현상태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고 도서관 규모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며, 자관의 소장 데이터를 통합시켰을 때 동등한 조건으로 한다던지 하는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대부분이 찬성할 의견을 보였다. 책임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평가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 도서관에 기여도·종합목록의 역할·첨단학술정보센터의 역할

종합목록의 직접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서들의 종합목록과 KRIC에 관한 인식은 첫째, 분담목록으로 각 도서관들에 비용과 노력의 절감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다라고 응답했고 둘째, 데이터의 표준화와 통합관리가 되어야 하며 셋째, 첨단 학술정보센터에서 학술정보 교류 및 도서관 상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특히 OPAC을 통해 완전한 전자문헌과 이어지도록 하는 원문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앞으로 외국의 권위있는 분담목록 기관과의 협력도 모색해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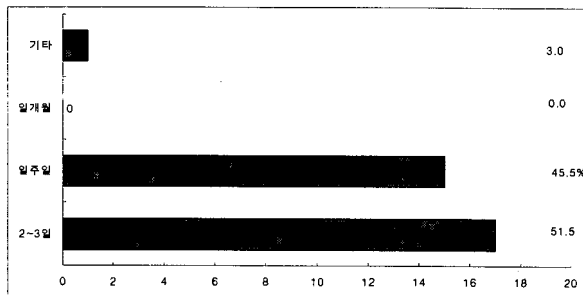
다. 상세한 내용은 <표4>에서 나타난 것과 같다.

조사내용	항 목	응답수(%)
도서관에 기여도	분담 목록으로 비용과 노력 절감	17(51.5%)
	종합목록(Union DB) 서지데이터의 망라성	11(33.3%)
	서지데이터 품질 개선과 일관성 유지	5(15.2%)
	기 타	0
종합목록의 역할	DB표준화와 통합 관리	25(75.8%)
	이기종간 호환성과 대책 수립	5(15.1%)
	전자파일 작업	3(9.1%)
	기 타	0
첨단학술정보센터의역할	학술정보교류 및 도서관 상호협조체제 유지	19(57.6%)
	각종 전자 서비스	7(2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5(15.1%)
	목록기관 구성원의 지속적인 교육	2(6.1%)

<표 4> 역할 평가

3) 목록 교육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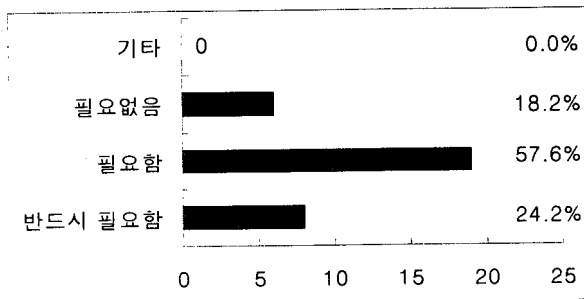
KRIC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록 교육시간은 2~3일이 17건(51.5%)으로 가장 높고 일주일이 15건(45.5%)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단지 종합목록 사용 매뉴얼 뿐만 아니라 목록 규칙과 MARC 전반에 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업무를 순환하고 있고 업무의 기술지식습득이 전임자로부터 전달되어지고 있으므로 명확한 목록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 숙지한 후에 작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여유기간도 필요하다.



<그림 4> 목록 교육 시간

4) 공공 도서관과 연계

대학 도서관간의 데이터 공유로 종합목록이 시작되었으나 <그림 6>에서와 같이 공공 도서관과의 연계는 공공도서관군간의 협력으로 충분하여 “필요없다”가 6건(18.2%)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필요하다” 8건(24.2%), “필요하다” 19건(57.6%)을 포함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27건(81.8%)이다. 종합목록을 개선, 보완하여 여건이 성숙되면 연계가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림 5) 공공 도서관과 연계

3. 결론 및 제언

의도한 바와 달리 종합목록을 이용하여 편목작업을 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도서관이 너무 적어 세세한 문제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설문지 작성에 있어서 선택 사항이 단순하고 응답하기 곤란하며 복수대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제한사항이 있었다.

본 설문지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기입형식에 관한 목록 규칙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의 중복과 누락, 오류와 부정확성이 지적되면 종합목록의 신뢰를 잃게 되고 편목사서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관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도 호환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며 필수 Tag는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OPAC은 홀로 존재 할 수 없고 단지 정보 서비스 중의 일부에 불과해 다른 전자 정보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앞으로 상호대차가 발전 대안이 될 것이며 종합목록이 그 역할을 맡아 목록 뿐만 아니라 원문 제공 모듈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물리적인 Data의 공유와 서지 Data에 대한 접근점 개념도 공유하는 의미에서이다.

셋째, 기존의 국공립대학 도서관 목록분과위원회의 활동처럼 시안에 따라 실무자들이 연구하고 토의 할 수 있는 체제나 기구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도 포함된 참가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E-mail, 전화, 메모, 워크2샵, 교육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며 그 결정 사항은 신속하게 각 도서관에 전달 되어야한다.

넷째, 이용자 목록 교육은 종합목록 사용 교육 뿐만 아니라 목록 규칙과 MARC에 관한 목록 전반에 대한 교육이 되고 초보자 과정과 재교육 과정을 포함해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전거 파일의 공유가 필요하다. 서지 레코드의 접근적인 표목의 일관성 유지에 결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온라인 전거 통제 시스템을 구축 활용해야 한다. 전거 파일을 공유함으로써 기본 표목의 선정에 따른 고충과 오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도서관간의 표목을 통일시킬 수 있어 목록 레코드의 표준화와 함께 원활한 분담 목록 시스템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여섯째, 종합목록의 참가를 유도하려는 의미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며 결과는 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각 개인의 노력이 인정 받을 수 있는 개인별 인센티브를 마련하면 효과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그 이전에 도서관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적절한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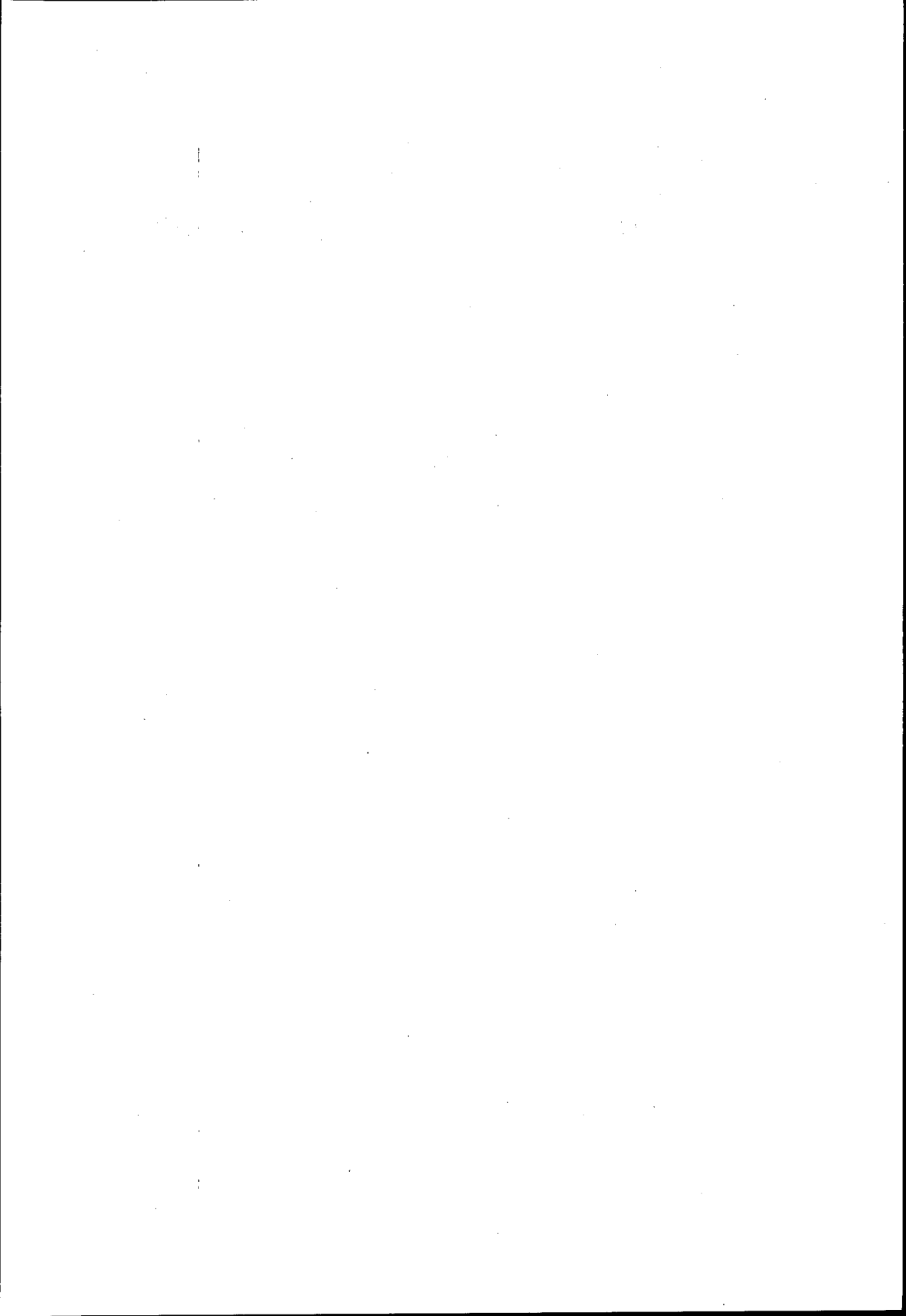
일곱째, 기존의 구축된 자료를 통합하여 병렬형의 공동목록인지 공유형의 공동목록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중복데이터가 많은 현실에서 현재 우선적으로 잘못된 데이터의 활발한 수정이 요구된다. 기존 시스템에 익숙해져 도움이 되지 않아 외면한다면 종합목록이 분담목록으로 성장하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여덟째, 현재와 같은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매년 급증되는 정보매체

를 입수하기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자료에 있어 도서관관에 의한 자료의 분산입수가 필요하다. 종합목록은 이러한 협동구입을 실현하게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김남석, 자료목록학. -제3증보판. 대구 : 계명대학출판부, 1995.
2. 김두연, 강우상, 대학도서관 전산화 추진 현황. 국립대학도서관보 제12집, 1994.
3. 김지훈, 정보서비스의 품질 평가에 관한 고찰. 도서관학 논집 25집, 1996.
4. 사공복희, 온라인목록의 이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3집, 1992.
5. 양수미, 자동화에 따른 도서관 조직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 연구 제29권 2호 1998. 6.
6. 이제환, OPAC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품질 평가 : SOLARS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2호, 1998. 6.
7. 정필모, 온라인환경에서의 편목법. 도서관학 논집 제25집, 1996.
8. 조수련, 조순영, 분담목록 시스템을 위한 data 표준화 I. 국립대학도서관보 12집, 1994.
9. 조수련, 조순영, 분담목록 시스템을 위한 data 표준화 III. 국립대학도서관보 14집, 1996.
10. 최희곤, 목록자에 있어서 인터넷의 가치성. 정보관리 연구. 제29권 제2호, 1998. 6
11. 한상완,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 환경 변화와 그 대응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 1998. 6.
12. <http://solarsnet.snu.ac.kr>
13. <http://www.kric.ac.kr/introduce>



II. KRIC(첨단학술정보센터)의 종합목록이용 현황

6. KRIC(첨단학술정보센터)의 종합목록실시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가. 예
나. 아니오
7. KRIC의 “목록규칙 지침서”와 “공동목록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를 받아 읽어보셨습니까?
(www.kric.ac.kr에 올려져 있으므로 다운 받아 사용가능)
가. 예 (내용의 충실성이 1). 충분하다 2). 보통이다 3).부족하다)
나. 아니오
8. KRIC의 목록교육을 이수 했습니까?
가. 기초교육 이수
나. 사서실무교육 이수(기초교육 이수후에 가능)
다. 신청중
라. 계획 없음
9. KRIC의 종합목록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 예
나. 아니오
10. 9번에서 가. 예의 경우
가. 목록규칙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의문점의 해결 방법은 어떻습니까?
1). KRIC에 문의
2). 다른 도서관에 문의
3). 기 타 ()
나. 가항의 연락 매체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1). 전화
2). E-Mail

3). FAX

4). 기 타 ()

다. KRIC 목록규칙이 자관과 상이 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1). KRIC 규칙에 따른다

2). 자관 규칙에 따른다

3). 기 타 ()

라. Download 받았을 경우에 data의 신뢰정도는 어떻습니까?

1). 전적으로 의존

2). 일부 Tag 체크

3). 완전히 불신

마. 중점을 두고 파악하는 Tag ? (비중높은 순서대로)

() () ()

11. 7번에서 나. 아니오의 경우

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통신장애

2). 목록규칙상의 문제

3). 기존 시스템에 익숙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않음

4). 기 타 ()

나. 앞으로의 이용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1). 6개월 이내 예정

2). 12개월 이내 사용 예정

3). 24개월이내 사용 예정

4). 사용 계획없음

12. 현재 KRIC 종합목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통신기술상의 문제와 장애 발생

나. 서지 Data의 중복

다. Data의 오류와 부정확성

라. 기 타 ()

13. KRIC 종합목록 참여와 기여도를 대학 종합평가 항목에 반영한다는 점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 주십시오.

가. 찬성 → ()

나. 반대 → ()

14. KRIC 종합목록이 각 도서관에 기여하는 것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 종합목록(Union DB)으로 서지데이터의 망라성

나. 서지데이터의 품질개선과 일관성 유지

다. 분담목록 실현으로 비용과 노력 절감

라. 기 타 ()

III. KRIC의 전망

15. KRIC종합목록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가. DB표준화와 통합관리
나. 이기종간 호환성과 대책 수립
다. 전거 파일 작업
라. 기 타 ()
16. 첨단학술정보센터가 종합목록 이외에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이라 생각 합니까?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나. 각종 전자자료 서비스
다. 학술정보교류 및 도서관간의 상호 협조체제 유지
라. 목록기관 구성원의 계속 교육
17. KRIC의 목록 교육시간이 어느정도면 적절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가. 2-3 일
나. 일주일
다. 일개월
라. 기 타 ()
18. 종합목록의 공공도서관과 연계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 필요 하다
다. 필요 없다
라. 기 타 ()
19. 기타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